

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(요 3:16)

- ❖ 질문: 영생은 멸망과 대조적 표현. 멸망(ἀπόλλυμι, perish)이 무슨 뜻일까?
- ❖ 요 3:14의 인자(Son of Man)와 요 3:16-18의 하느님의 아들(Son of God)은 다 같이 예수를 가리킴. (독생자, Gr. *monogenes*, only begotten=>1:18).

#### A. 니고데모와의 대화

##### 1. 밤에 예수께 찾아오다.

- 밤=>무지(無知). 빛과 어둠의 메타포어(요3:2; 9:4; 11:10; 21:3. 요3:19-21. cf. 요 13:30)
- 두 랍비간의 대화(3:2; 10). 기존의 신학과 새로운 신학.
  -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여기서는 유대 기존의 신학을 대표.
  - 니고데모 개인의 질문이 공동체 관심사로. 너=>너희; 예수=>우리=> 3인칭, 인자, 그

##### 2. 영생과 거듭남

- 생명과 영생. 공관복음의 하느님의 나라(Kingdom of God)에 대한 요한복음식 표현. 이것을 개인구원과 사회구원으로 이해하는 것은 이원론적 사고. 다른 표현=> 신학 다시하기
- 거듭남(born from above; born again)=> 갱생(regeneration)
  - 위로부터=> 하느님이 저 위에 계시다는 공간적 이해. 사고의 전환=> 아래로부터, 근원으로부터=> “하느님으로부터 난 자”(요 1:12-13). 비종교적 표현: 참 자아 실현.
  - 니고데모의 질문은 ‘과거의 패러다임’ (혹은 문자적 이해)=> 두 번 태어남?
  - 예수의 대답은 이에 대한 ‘새로운 패러다임’에서 설명(5-8절)=> 물과 성령
  - 여기서 물은 육체, 유대교처럼 혈통에 따른, 성령은 영, 예수의 가르침에 따른 정체성. 곧 새로운 신학하기. 신념, 철학, 가치관 형성. 대립관계라기 보다는 한 차원 높은 단계.
  - 바람과 영. 헬라어 프뉴마(πνεῦμα, *pneuma*), 히브리어 루아흐(רוּחַ, *ruah*)는 둘 다 바람(wind)과 영(spirit)으로 해석이 가능. 초점은 육의 입장에서 영의 흐름을 모름.
- 하늘로 올라가다=> 역시 하느님께로, 참 자아로 회귀.
  -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(요 3:13). 아마도 모세(신 34:5-6)와 엘리야(왕하 2:1-12)를 두고 한 말. 모세와 엘리야는 유대교의 기둥. 다른 말로 하면 기존신학/이데올로기/체제의 근간. 역시 새로운 신학하기.
  - 초점은 하늘로 올라갔다(cf. 고후 12:2-4) 그 자체—특별한, 기적적인 일—보다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(빌 2:6-11)는 말. 근원에 관한 생각.

#### B. 예수의 오신 목적

##### 1. 심판이 아닌 구원

- 심판—마찬가지로 구원—은 밖으로부터의 개입이 아닌, 스스로 만드는 것(요 3:17-21).
- 자신의 삶의 선택에 대한 결과=> 책임회피란 없다!

##### 2. 요한복음의 현실화된 종말론(realized eschatology)

- 종말을 오늘(에) 산다. 삶의 결과를 오늘 미리 본다/산다.
- 빛과 어둠은 (사후세계 심판개념을 담았다 치고) 종말론의 은유적(metaphorical) 표현이다. 심판, 영생은 미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닌, 오늘 우리의 삶을 결정(심판/사망에서 생명/영생으로, 요 5:24). “진노가 머물다”(3:36)라는 표현 역시 현재상태를 말함=> 3:18. (cf. 공동번역은 미래의 일로 오해할 소지를 담았음.)

#### ----- 생각해 보기

1. “사람이 되다”는 말이 있다.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그 자체로는 아직 사람이 아니라는 말. 이를 요한복음의 거듭남과 비교하면?
2. 영생 혹은 생명이 내 삶 속에서 뜻하는 바는?